

요약

독일 인구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는 독일 공공 건강보험(GKV)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의료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연방정부는 GKV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공공 건강보험조합에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을 큰 폭 인상하였으며, 공공 건강보험조합 및 사회단체들은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함

- 독일의 공공 건강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은 독일 인구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시스템임¹⁾(〈표 1〉 참고)
- 독일은 2025년 기준 연간 소득이 73,800유로 미만인 근로자는 자동으로 GKV에 가입됨
 - 연간 소득이 73,800유로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는 GKV나 민간 건강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PKV)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보험료는 총 급여(월 최대 6,150유로 한도)의 14.6%이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7.3%씩 균등하게 분담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함
 - 공공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단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GKV는 2025년 기준 총 94개²⁾의 공공 건강보험 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건강보험조합에서는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표 1〉 공공 건강보험(GKV)와 민간 건강보험(PKV)

항목	공공 건강보험(GKV)	민간 건강보험(PKV)
가입 자격	독일에 합법적이고 장기 체류 중인 모든 사람 (30세 이상 유학생 제외)	고소득자(2025년 기준 소득 73,800유로 이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30세 이상 유학생 등
보험료	총 보험료= 기본 보험료+추가 분담금 기본 보험료= 14.6%(고용주와 50:50 분담) 추가 분담금= 평균 2.5%(고용주와 50:50 분담)	연령, 건강 상태, 보장 범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함
보장 내용	입원/외래 진료, 약 처방, 치과 치료, 의료 보조기구, 임신·출산 등 기본 의료 서비스 전체 포함 (1인실, 사설의사 보장 불가)	공공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본 의료 서비스 보장 + 사설 병원비, 1인실 입원 등 추가 혜택 포함
가족 보장 여부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 가족 무상 보장	가족 구성원마다 별도 보험료 필요

자료: IAMEXPAT(<https://www.iamexpat.de/>); Germany-visa(<https://www.germany-visa.org/>)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1) IAMEXPAT(2025. 4. 25.), "Statutory health insurance in Germany(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https://www.iamexpat.de/expat-info/german-health-insurance/statutory-health-insurance-germany?>)

2) GermanPedia(2025), "Number of public health insurance companies in Germany"

-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의료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³⁾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및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GKV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음
 - 독일 연방의회는 의약품법 개정 및 의료 연구법 제정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허용하고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였는데,⁴⁾ 이러한 정책이 GKV의 지출 증가를 야기함⁵⁾
 - 2025년에는 약 460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2050년에는 최소 3,8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연방정부는 GKV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건강보험조합에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을 기존 평균 1.7%에서 2025년 평균 2.5%로 인상함⁶⁾(〈표 2〉 참고)
 - GKV의 재정 적자는 일반적으로 추가 분담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충당하는데, 추가 분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택함
 - 이는 전년 대비 0.8%p 인상한 것으로, 거의 50년 만에 가장 크게 인상한 것임⁷⁾
 - 정부의 추가 분담금 인상 발표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 건강보험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인상하였으며, 가장 많이 인상한 공공 건강보험조합은 전년 대비 2.4%p 인상함

〈표 2〉 최근 8년간 GKV 평균 추가 분담금 기여율

(단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여율	1.0	0.9	1.1	1.3	1.3	1.6	1.7	2.5

주: 독일연방보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자료: 독일연방보건부(<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 "Kennzahl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2011 bis 2024"

- 독일 연방 보건부는 비효율적인 독일 의료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공공 건강보험조합 및 사회단체들은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 가입자에 전가한다고 비판함⁸⁾
 - 칼 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 장관은 독일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독일의 건강보험료가 유럽에서 가장 비싸며, 이것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함
 - 공공 건강보험조합과 독일 사회협회 및 납세자 협회 등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평균 0.8%p나 인상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가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보건 전문가들은 GKV 재정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3) gutentagKOREA(2024), "2025년 독일 건강보험, 460억 유로 적자 예상 - 추가 보험료 인상 불가피"

4) 독일 의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의약품법을 개정하여 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허용하고, 2024년 의료 연구법을 제정하여 특정 임상 시험을 수행한 제약사에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함

5) Convington(2024), "Germany to enact new law with significant changes to drug pricing and reimbursement rules"; Convington(2024), "Germany amends drug pricing and reimbursement laws with "Medical Research Act" - Drug pricing becomes intertwined with local clinical research expectations"

6) Germanyvisa(2025), "Public Health Insurance Rates in Germany See Significant Increases in 2025"

7) BKK-Dachverband(2025), "GKV-Finanzierung - Lauterbachs Luftschloss"

8) Welt(2024), "Scharfe Kritik nach Erhöhungsprognose"